

교육과정 속 음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Music in the Curriculum, Echoing Voices from the School

이동희*
Donghee Lee

들어가며

2025년 6월 7일 토요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지누e음에서 ‘슬기로운 음악교사의 교육과정 활용백서’라는 주제로 한국음악교육학회 제20회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해 음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최진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음악교육이야말로 교사의 창의적 해석과 실천을 통해 비로소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콜로키움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의미한 활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통합교과 속 음악,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과 과제

첫 번째 발표는 박지영 교수와 김은주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두 발표자는 ‘그래도, 음악은 해야 하니까’라는 다소 절실한 제목을 통해, 2022 개정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음악교육의 현실을 분석하였다. 현행 교과서 속 음악 활동은 비음악적 학습 주제를 보조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단원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래가 삽입되거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신체표현 활동으로만 배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제재곡의 난이도 역시 학년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지적되었다. 변박, 당김음, 부점, 임시표가 포함된 악곡이 초등 1-2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실제 수업 적용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었다. 동일 곡이 1-2학년과 3-4학년에 반복 수록되어 학년군에 따른 위계적 확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들은 악곡 및 활동 재구성 원칙, 교사 연수 및 자료 지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발표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통합교과 속에서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희석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제도적 지원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였다.

무형유산과 만난 교육과정, 평택농악의 수업화 제안

두 번째 발표는 김근애 교사와 강수리 교사가 맡았다. 이들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평택농악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평택농악은 웃다리농악의 대표주자로서 지역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예술성 및 창의성·공동체성·지역적 다양성 함양이라는 교육적 가치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 수업을 위해서는 흥미 유발, 지역연계를 통한 이해, 평택농악 장단 및 진풀이 학습, 농악 창작, 발표회를 통한 생활 속 활용 등 총 16차시의 체계적 단계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설을 직접 만들어 장단에 얹어보거나, 모듬별 창작 농악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표자들은 학교자율시간을 무형유산 관련 교육과정 개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논하면서,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자원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함께 읽고 함께 실천하는 교사들, 탐구 공동체의 가능성

세 번째 발표는 유하양 교사가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탐구 공동체에 참여한 음악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탐구 공동체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나선형 구조를 통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동료적 비평과 지원을 주고받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교사들은 기존의 고립된 실천을 넘어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만 여겼던 동료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국가 교육과정을 차근히 다시 읽으며 비판적·협력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나아가 교사들은 탐구와 실천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도 새로운 실천 지식을 생성하고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발표는 탐구 공동체가 교사 전문성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었다.

배움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무대

이번 콜로키움에서 학술발표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것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 공연이었다. 이번 무대는 25현 가야금 3중주, 민요연곡, 사물놀이 협연 국악관현악 <신모듬>으로 구성되었다. 가야금 3중주는 현악기의 섬세한 음색과 함께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민요연곡은 청중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만큼 흥겨웠다. 특히 <신모듬>은 사물놀이와 관현악이 결합된 협연으로,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

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웅장한 울림에 큰 감동을 받았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공연은 이번 콜로키움이 단순한 학술적 담론을 넘어, 음악 그 자체가 지닌 감각적이면서도 정서적 힘을 체험하는 장이기도 하였음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나오며

제20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콜로키움은 음악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여러 연구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속 음악교육의 현실 비판, 평택농악을 활용한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탐구 공동체 사례 연구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의 살아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음악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삶의 기쁨과 울림을 전하는 것’임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학술과 예술, 현장과 연구가 함께 어우러진 말 그대로 ‘음악과 삶이 만나는 자리’이자 축제의 장이 아니었나 싶다.